

일본 메이지기 [明治期] 문관대례복의 성립과 형태적 특징

이 경 미

서울대학교 박물관 객원연구원

Establishment of Western-style Court Dress and its Formal Characteristics in the *Meiji* Period of Japan

Kyung-Mee Lee

Guest Researcher,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투고일: 2010. 1. 25, 심사(수정)일: 2010. 3. 10, 게재 확정일: 2010. 4. 2)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analyzing Japanese modern costume, through examining legislation process and the relics of *Chickimkwan's* and *Juimkwan's* court costum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oser of civil court costume, established in 1872, was *Iwakura* Mission dispatched to America and Europe. The Mission realized the importance of preparing western-style costume in civilization from experience wearing traditional clothing at ceremony of presenting credentials in America. Afterwards, the Mission proposed that the government accept western-style as civil court costume and became first wearers in Japanese in England. Second, the difference, between ordinance and actual clothes worn by *Iwakura* Mission, occurred in process of legislation in 1872. That might be considered as trial and error in introducing different culture. The coexistence of England and French styles was unified into French style by the revision of civil court costume in 1886. Third, the pattern of paulownia embroidered on civil court costume was utilized as symbol of Japan. While the costume of *Chickimkwan* was embroidered by the pattern of 7 and 5 leaves paulownia, that of *Juimkwan* was 5 and 3 leaves expressing their grades. Fourth, relics research showed how formed manufacturer information and enacted design were in embroidery. The relics seemed to be manufactured in Japan, because emblem of *Mitsukosi* tailor was embroidered on inner part of the back of collar of *Chickimkwan* in *Nara Women's University*, Japan and that of *Yamasaki* on left inner pocket of *Juimkwan* in the Independence Hall, Korea. The embroider techniques comprised forming by filler particles according to the design, filling up coiled gold threads and expressing stem with gold threads and spangles. As preemptive study, establishment process of Japanese civil court costume in this study will help understand form characteristics appeared in civil court costume act of Korean Empire.

Key words: civil court costume(문관대례복), *Iwakura* Mission(이와쿠라 사절단),
Meiji Government(明治정부), the pattern of paulownia(오동 문양)

I. 서론

19세기 중후반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양을 향해 문호를 개방한데 이어 자국의 제도와 문물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복식의 변화는 전통적인 복식체계를 간소화하고 양복을 예복과 일상복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본은 1872년(明治5)의 상당히 이른 시기에 서구식 예복을 문관대례복으로 도입하였다. 문관대례복은 黑羅紗를 의복 재료로 하여 山形의 모자, 연미복형 상의, 조끼, 바지에 검을 폐용함으로써 일습이 이루어진다. 문관대례복이 지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독립된 주권 국가의 상징을 문양화하여 복식에 자수하거나 검에 새기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오동문양이 채택되었다. 문관대례복은 1872년(明治5)에 제정되어 1938년(昭和13)에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는 발표로 더 이상 착용되지 않다가 패전 후 1955년(昭和29)에 법령을 통해 폐지되었다. 일본의 문관대례복은 실제로 착용된 기간만 보더라도 6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존속된 복식으로, 그 형태적 특징과 복식 구성, 문양 배치 등은 1900년에 제정된 대한제국의 '서구식 대례복'¹⁾에 참고가 되었다. 대한제국의 서구식 대례복은 1886년(明治19) 개정된 문관대례복의 형태와 유사다. 지금까지 대한제국의 서구식 대례복이 '영국식 대례복을 모방한 일본식을 모방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일본의 대례복이 프랑스식을 따른 것이므로 대한제국의 대례복 형태에 대한 기원 역시 수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일본복식사 연구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의 서구식 대례복 연구를 위해 明治期 문관대례복에 대한 고찰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헌을 고찰하고 유물을 조사하였다. 첫째, 일본 학계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²⁾ 일본 문관대례복의 성립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문관대례복의 제정이 서양 중심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동등한 지위를 획득하려는 明治 정부의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둘째, 문관대례복의 구체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1차 자료인 『法令全書』를 중심으로 제정령과 개정령

을 고찰함으로써 그 형태를 살펴본다. 셋째, 현재 남아 있는 문관대례복 유물 두 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제로 제작 착용된 문관대례복의 형태적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조사된 유물은 제정법령이 유효한 시기인 1930년대에 착용된 것으로, 일본 奈良女子大學 소장의 문관 칙임관 대례복 1점과 독립기념관 소장의 문관 주임관 대례복 1점이다. 마지막으로, 문관대례복에 표현된 일본의 국가상징 이미지로서 오동문양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19세기 중후반기 동아시아에 도입된 문관대례복의 외교적 의미, 근대 주권 국가 상징으로서의 의미 등이 부각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1876년 일본에 의해 개항한 이후 1900년 문관의 서구식 대례복을 제정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복식제도 연구에 시사점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의 표에서 정리된 문관대례복 도식은 『法令全書』의 그림을 정리한 것이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유물 사진은 본 연구자가 직접 활용한 것이다.

II. 明治期 문관대례복의 제정 경위

일본은 1854년 미국에 의해 개항을 하였다. 불평등조약이라는 치명적인 결합을 지난 개항으로 인해 개항 직후부터 조약개정이 국가의 목표가 되었다. 1868년 明治維新으로 왕정복고를 이끈 유신정부의 정치인들은 문명개화를 빨리 이루는 것이 조약개정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지니게 되었다. 1871년(明治4) 11월 12일(음력 12월 23일), 미국과 유럽을 향한 일본의 대사절단이 요코하마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는 명치정부가 근대화를 목적으로 하여 감행한 투자이자 모험이었다. 이 사절단의 핵심 인물로 大使 이와쿠라 도모미 [岩倉具視]는 당시 右大臣이었고, 부사인 木戸孝允, 大久保利通 역시 明治維新의 중심인물들로, 사절단이 출발한 다음의 명치정부를 "부재정부 [留守政府]"라고 칭할 정도로³⁾ 정부의 중요한 인물들이 참가하였다.

이와쿠라 사절단의 전체 여행 여정은 요코하마 [横濱]를 출발하여 미국을 방문한 다음 유럽으로 가서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덴

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방문하고, 귀국하면서 싱가폴, 홍콩, 상해를 거쳐 요코하마로 귀국하는 것으로, 전 세계를 돌아보는 것이었다. 기간은 1871년(明治4) 11월 12일(음력 12월 23일)부터 1873년(明治6) 9월 13일까지의 1년 10개월에 걸친 것이었다.⁴⁾ 이와쿠라 사절단의 여행에 대해서는 『米歐回覽實記』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⁵⁾



〈그림 1〉 岩倉사절단의 대사와 부사들
堂々たる日本人, 2001, p.17.

복식정책에 있어서 明治정부는 성립 초기에 尊王攘夷운동을 통해 왕정복고를 이루하였다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唐風의 복식 요소를 모두 제거한 일본식 복식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양복은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 선택되고 있는 상황이었다.⁶⁾

그런데, 이와쿠라 사절단이 미국에 도착한 직후인 1872년(明治5) 1월 23일(음력 1871년 12월 14일), 샌프란시스코의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인 〈그림 1〉⁷⁾을 보면大使 이와쿠라는 일본식 상투인 정마계 [丁髷]에 하오리하카마 [羽織袴]를 입고 구두를 신고 실크햇을 옆에 두고 있는 일본식과 서양식의 절충형 차림을 하고 있지만,⁸⁾ 副使인 木戸孝充, 山口尚芳, 伊藤博文, 大久保利通은 모두 양복 차림이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양복을 채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양장 차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들 중 부사 山口尚芳, 伊藤博文은 幕末부터 외국에 유학한 경험이 있었고, 초행인 木戸孝充, 大久保利通의 경우에는 앞선 외국 경험자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단발 양장이 여행에는 편리하다는 정보가 있었다.⁹⁾ 이

와쿠라의 경우는 공식적인 대사는 신분으로 인해 전통적인 옷차림을 고수하되, 여행의 편리를 위해 구두를 신고 실크햇을 쓴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도착한 이와쿠라 사절단이 미국 대통령에게 국서를 봉정하는 자리에서 일본의 전통적인 의관 차림을 고수한 것을 〈그림 2〉¹⁰⁾의 삽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사절단이 준비한 일본 예복의 상세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절단의 차림에 대한 추측도 가능하다.¹¹⁾

이후 이와쿠라 대사는 미국에 있으면서 단발을 하였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일본식 예복을 착용하였다. 이들은 미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복식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다. 미국을 출발하여 영국으로 가면서 본국 정부에 양복 착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정부와 사절단 간에 주고받은 수차례의 서신 [公信]에 담겨 있다.¹²⁾ 이와쿠라 사절단과 明治정부가 주고받은 서신은 『大使公信』과 『本朝公信』으로, 『大使公信』은 사절(대사, 부사)로부터 본국 정부(대신, 참의, 외무경)에게 보낸 서신이고, 『本朝公信』은 본국 정부가 사절에게 보낸 서신이다. 대례복을 정하는 과정과 관련한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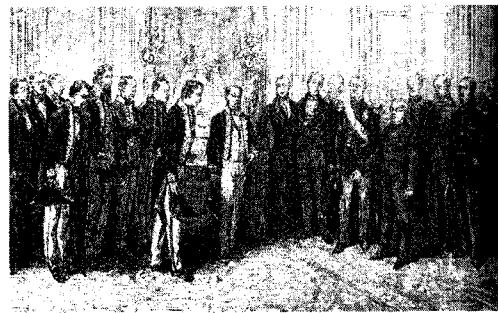
명치5년 임신 7월 18일자 『大使公信』제12호(영국 우편편) 영국 수도 런던으로부터 새로 정한 대소 예복의 뜻과 규칙에 따라서 당국에서 새로 조정하고…각국 제왕을 배알하고 그 외의 예전에도 착용되자 함이다…일본의 조정에서 만약 狩衣 直垂를 착용한다면 외국인의 비방을 받고 면목을 잃게 되는 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大久保, 伊藤 양부사가 출발할 때 그림 도면을 欧洲의 예복과 비교한 바, 재봉에 같고 다른 곳도 있기 때문에 모양 표선 등은 그림 도면을 따를 것이 요구되고 그 외 세세한 곳은 欧風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한다.

명치5년 임신 8월 22일자 『大使公信』제15호(미국 우편편), 영국 수도 런던으로부터 새로 정한 대소례복의 뜻 지난 편지에도 … 정부로부터 받은 양식 그림 도면으로써, 서양 일반의 예복과 조합한 바, 그 재봉에 있어서 다른 점과 같은 점이 있는바, 프랑스의 복식 제도를 모방하여 이를 개정한다. 즉 별지의 그림 도면대로 된다. 또 영국을 시작으로 각국 제왕 등을 알현할 때부터 여러 禮典에도 이 새로 정한 대례복을 이용하고자 한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 이들이 대례복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외국에 나가는



〈그림 2〉 岩倉사절단의 미국대통령 회견
堂々たる日本人. 2001. p.36.



〈그림 3〉 岩倉사절단의 프랑스대통령 회견
堂々たる日本人. 2001. p.93.

사절이 舊風의 예복을 착용하거나, 일본의 조정에서도 狩衣、直垂를 착용한다면 외국인의 비방을 받고 면목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일본식 예복 차림으로는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차림으로는 조약 개정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대례복은 “각국 제왕을 배알하고 그 외의 예전에도 착용되고자 함이다.”, “영국을 시작으로 각국 제왕 등을 알현할 때부터 여러 禮典에도 이 새로 정한 대례복을 이용하고자 한다.”와 같이 외교의 현장에서 착용하도록 한다는 목적의식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본국 정부와 서신교환을 통한 설득과 함께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기간 중에 大久保와 伊藤 두 副使를 본국으로 귀환시켜 대례복 제정을 마무리 지었다. 이에 따라 두 부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때에는 明治정부가 제정한 대례복 규정과 디자인 도안을 지참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을 통해 明治정부와 사절단이 대례복을 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정부로부터 받은 그림 도면과 서양 일반의 예복과 조합한 바, 그 재봉에 있어서 다른 점과 같은 점이 있으므로, 프랑스의 복식 제도를 모방하여 이를 개정한다.”와 같이 현지 제작의 문제로 인해, 정부가 제시한 도안에 완전히 일치하는 대례복을 제작하지 못한 것 역시 확인된다. 이로부터 1872년(明治5) 발표되는 일본 문관 대례복과 사절단이 유럽에서 제작 착용하는 대례복 간에 디자인상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사절단의 대례복은 정부의 도안을 미리 받은 사절단

일원인 林董이 일행보다 먼저 영국으로 출발하여 사절단이 영국에 도착하기 전 정부로부터 받은 도안대로 대례복을 제작함으로써 마련되었다. 林董의 회고록에는 대례복 제작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의 인용문은 그 내용을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다.

사절일행은 워싱턴에서 대통령에 국서봉정할 때는 衣冠의 예복차림이었지만, 이 때 신 예복의 제출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먼저 출발해서 영국에 도착하여 사절 일행을 위해 신 예복을 주문해서, 영국에서 국서를 봉정할 때에는 신 예복이 되었다.¹⁴⁾ 신제 대례복을 영국에서 조제하기 위해, 내가 사절 일행보다 먼저 런던으로 건너간 것은, 이미 말한 것과 같다. 그 때 겹의 날 끝에 봉황 머리를 불일 것을 주문하는 것에 큰 곤란이 있었는데, 마침내 모호한 모양을 그려 이를 모형으로 만든 것이 지금 이용되는 것이다. 봉황도 닭도 아닌 일종의 묘한 새머리이다.¹⁵⁾

일본 최초의 문관대례복은 1872년(明治5) 11월 9일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공표가 되지만 실제 착용은 11월 5일 영국 왕실에서 빅토리아 여왕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처음 이루어졌다.¹⁶⁾ 〈그림 3〉¹⁷⁾은 영국 다음의 방문국인 프랑스에서 대통령과 회견하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가운데에서 왼쪽의 일행이 이와쿠라 사절단이다.¹⁸⁾ 또한 〈그림 4〉¹⁹⁾는 덴마크에서 만찬 회에 참석한 사절단을 보고한 현지의 신문에 이와쿠라 대사가 소개된 자료이고, 〈그림 5〉²⁰⁾는 일본의 지폐를 도안한 바 있는 이탈리아 화가 키요소네(Edoardo Chiossone)가 이와쿠라 사절의 모습을 동판화로 제작한 것으로, 이를 그림 자료를 통해 당시 사절단의 대



〈그림 4〉 덴마크에서 岩倉
堂々たる日本人,
2001, p. 117.



〈그림 5〉 키요소네 作 岩倉
キヨッソーネと近世日本畫里
歸り展, 1990, p. 21.

례복 착용모습과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 일본에서 이와쿠라 사절단과 明治정부간 협의에 의해 유럽의 대례복을 모방한 대례복의 제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明治정부에서 모방한 대례복이 영국식 형태인데 대해 이와쿠라 사절단이 유럽 현지에서 제작하는 대례복은 프랑스식 형태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明治 초기 대례복은 2종류의 형태가 공존하게 되었다. 明治정부에서 제정하는 대례복은 다음 절에서 후술하게 되지만, 스텐딩 칼라가 앞목점에서 완전히 여미지는 형태(영국식)이고 사절단이 유럽현지에서 착용한 대례복은 V네크라인을 형성하는 형태(프랑스식)이다. 이들 두 가지 종류의 대례복은 초기에 공존하다가 1886년(明治19) 문관대례복 개정령을 통해 한 가지로 통일되게 되는데, 林董이 '지금 행해지는 문관대례복은 처음 제정한 때 발표된 도식과는 크게 달라서 많은 것은 내가 영국에 있어서 재봉장과 상담해서 정한 바에 기초를 둔다'고 화고하였듯이²¹⁾ 이와쿠라 사절단이 착용한 프랑스식 대례복 형태가 채택되었다.

III. 明治期 문관대례복의 제정과 개정

1. 문관대례복의 제정과 착용일

문관대례복 제정에 앞서 관제의 변화로써 척주관입관에 대한 제정은 1869년(明治2)에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勅奏判授의 등급을 정하였는데 4위 이상을 勅授, 6위 이상을 奏授, 7위 이하를 判授라고 했다가, 이를 개정하여 勅任, 奏任, 判任으로 하였다.²²⁾ 이어서 明治정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와쿠라 사절단의 제안을 받아들여 1872년(明治5) 11월 12일 太政官 제339호로 문관대례복을 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의 인용문과 같다.

금번 척주관관원 및 비역유위 대례복과 상하일반 통상의 예복을 별책복장도식과 같이 정한다. 이전의 의관으로써 제복으로 삼고 直垂 [히타타레], 狩衣 [카리기누], 上下 [카미시모]등은 모두 폐지한다. 단 신제의 예복을 마련하지 못하는 동안은 예복착용의 때를 당분간 直垂, 上下로 한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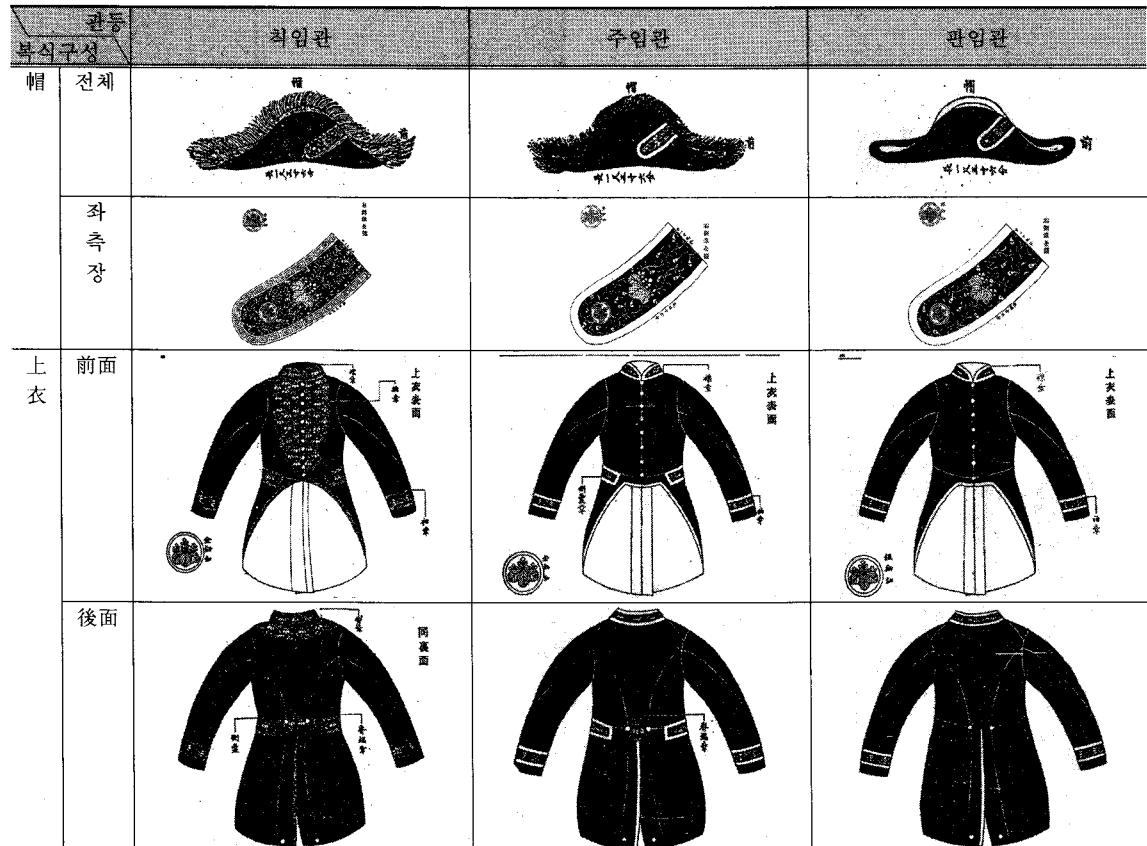
〈표 1〉²⁴⁾은 1872년(明治5) 『法令全書』에서 위의 인용문을 이어서 기록된 '大禮服制表' 중 '문관대례복 제식'을 번역하여 정리한 것이다.

또한 〈표 2〉²⁵⁾는 '문관대례복 도식'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표 2〉를 통해 상의는 싱글 버튼의 연미복형에 스템딩칼라이고 조끼도 싱글 버튼의

〈표1〉 1872년(明治5) 문관대례복 제식

복식 구성 / 관등	勅任	奏任	判任
帽 飾毛 左側章	黑羅紗 白 黑天鵝絨(오칠동문양 한 개, 桐蓄 작은 당초로 주연을 하고 電紋 폭 은 三分) 직경7분(금제오칠동)	좌동 黑 同(오삼동 문양 한 개 桐蓄 중간 당초로 주연하고 단선폭 은 三分) 좌동(금제오삼동)	좌동 없다. 同(오삼동 문양 한 개 桐 蓄 큰 당초로 주연하고 좌동) 좌동(뉴제좌동)
紐釦(단추)			
上衣 飾章繡色 御紋章 緣飾章 大紐釦 [큰 단추]	黑羅紗 金線 桐蓄小唐草 電紋線 폭 삼분 직경7분(금제오칠동)	좌동 금선 오삼동(좌동中唐草) 무지단선 폭 삼분 좌동(금제오삼동)	좌동 은선 좌동(좌동大唐草) 좌동 좌동
下衣 (조끼) 小紐釦(작은 단추)	白羅紗 직경5분(금제로 수는 정하지 않고 중간2촌으로 한다.)	鼠羅紗 좌동	紺羅紗 좌동銀製
袴 兩側章	白羅紗 전문선 폭 1촌	鼠羅紗 무지단선 폭 좌동	紺羅紗 좌동

〈표 2〉 1872년(明治5) 대례복 제도 도식



관등 보식구성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
조끼	短 胴 服			
바지	측장			
飾章	소매 칼라			
	등章			
	胸 章1 章2 章3			
	側 囊 脊 端			

스탠딩칼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의의 金章은 칙임관에만 있고 주임관, 판임관에는 없다. 대신 袖口, 칼라에는 모두 금장이 있고, 側囊과 脊端章(뒤허리 중심)은 칙임관과 주임관이 조밀한 정도의 차이를 둔 금장을 하도록 하였다. <표 2>를 통해 자수 문양이 매우 섬세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도안은 서양의 금물 자수 기법으로 나타내기에는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1>과 <표 2>를 종합하여 문관대례복의 형태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모자

재질은 칙임, 주임, 판임 모두 흑라사이고 칙임관은 환색 깃털로, 주임관은 검은색 깃털로 장식하며 판임관은 깃털 장식이 없다. 좌측장²⁶⁾은 검은색 벨벳 [黑天鵝絨] 위에 오동문양을 자수하고 단추에도 오동문양을 새겨 넣는다.

〈표 3〉 1872년(明治5) 문관대례복 제도-상의 소매의 等級標條와 도식

勳任	奏任	判任	等外
等及 標條	1등 금선3조	4등 금선4조	8등 은선7조
			9등 同6조
	2등 同2조	5등 同3조	10등 同5조
			11등 同4조
		6등 同2조	12등 同3조
	3등 同1조		13등 同2조
		7등 同1조	14등 同1조
			15등 없다
도식			

2) 상의

상의의 재질은 모두 흑라사이고 칙임관, 주임관은 금선으로, 판임관은 은선으로 장식한다. 紋章은 모자와 마찬가지로 칙임관은 五七桐으로, 주임관과 판임관은 五三桐으로 하고 가장자리의 장식은 칙임관만 電紋 三分을, 그 외는 無地의 단선으로 한다. 단추의 규정은 모자와 같다.

3) 下衣(조끼)

칙임관은 흰색 라사, 주임관은 쥐색 라사, 판임관은 감색 라사로 하고 단추 수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형태는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이 모두 같다.

4) 바지

재질은 조끼와 같고 양측장의 폭은 모두 1촌으로 하며 칙임관만 측장에 電紋를 새긴다.

5) 오동문양

칙임관은 五七桐 문양을, 주임관과 판임관은 五三桐 문양을 자수하고 단추와 검에는 같은 문양을 새긴다. 五七桐 문양은 오동잎 위의 가운데 꽃술의 수가 7, 좌우 꽃술의 수가 5이고, 五三桐 문양은 가운데 꽃술의 수가 5, 좌우 꽃술의 수가 3이다. 이와 같은 꽃술 숫자의 차이뿐만 아니라 자수된 오동 문양의 수가 많고 적음에 의해서도 직급의 차이가 반영 되도록 하였다.

1872년(明治5) 대례복 제도에서는 각 관등의 등급에 따라 상의 소매에 〈표 3〉²⁷⁾과 같이 等級標條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칙임관과 주임관은 금선, 판임관은 은선, 등외는 백선을 재료로 하여 대례복 상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등급이 높을수록 선이 많아진다. 1877년(明治10) 9월 18일에는 제정된 대례복 중 조끼와 바지 색에 대한 개정이 있었는데, ‘泰西 여러 나라들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상하의 바지는 모두 흑색으로 하는 점을 참고하여 모두 흑색을 기본으로 하



〈그림 6〉 征韓論之圖, 1877, 楊洲延 그림
錦繪にみる明治天皇と明治時代. 東京: 朝日新聞社.
1966, p. 118.

여²⁸⁾) 이후에는 검은색의 바지만 입게 되었다.

1872년(明治5)의 문관대례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 자료는 1877년(明治10)에 제작된 〈그림 6〉²⁹⁾의 錦繪로 제작된 征韓論之圖를 들 수 있다. 〈그림 6〉을 보면 앞목점에서 완전히 여며지는 연미복 상의에 흰색 바지를 착용하고 있어서 1872년(明治5)의 대례복 착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1872년(明治5) 11월 29일에는 태정관 제373호를 통해 대례복 착용일을 발표하였다.³⁰⁾ 대례복 착용일로 제정된 날은 新年朝拜, 元始祭, 신년연회, 天長節 등 朝賀³¹⁾와 관련된 행사에 참석할 때와 일본의 건국과 관련된 伊勢兩宮例祭, 神武天皇即位, 神武天皇例祭와 명치천황의 선대왕인 孝明天皇例祭 등과 같이 왕실과 관련된 행사 및 예제에 참석할 때와 그 외에는 외국공사가 참조할 때 착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즉 대례복은 자국의 황제를 알현하는 전례와 외국 공사가 황제를 알현할 때에 착용하는 것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적 목적이 명확해진다. 이는 이와쿠라 사절단이 제안한 착용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자국과 외국의 황제와 관련된 의식에 착용하는 대례복의 근대적 의미를 명확히 한 것이다.

다음해(1873년) 2월 13일에는 대례복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지침으로써 칙주임관은 10월까지 제작하여 착용할 것을 규정하고, 관임관은 통상예복으로, 有位인 자는 전통예복인 直垂, 上下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융통성 있게 정하고 있다.³²⁾ 또한 통상예복의 의료에 대해 羅紗 이외의 것도 가능하지만 색에 대한 규칙은 지키라고 한 것으로 보아 1872년(明治5), 1873년(明治6) 경 일본에서 羅紗를 구하거나 대례복

을 제작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대례복 제정에 앞서 일본의 단발령은 廢刀令과 함께 1871년(明治4) 8월에 발표되었다.³³⁾

2. 1886년(明治19) 문관대례복 개정

1872년(明治5)에 제정된 문관대례복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와쿠라 사절단이 유럽에서 제작하여 착용한 형태와 明治정부가 제정한 형태의 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착용되다가 1886년(明治19) 12월4일 宮内省達 제15호로써 문관대례복을 개정하였다. 두 형태 중에서 이와쿠라 사절단이 착용한 형태로 통일한 것이다.³⁴⁾ 宮内省達 제16호로는 개정된 대례복이 마련되는 기간 동안에는 1872년(明治5)의 규정에서 標條를 제외하고 착용해도 무방하다고 정하였다.³⁵⁾ 〈표 4〉³⁶⁾는 개정된 문관대례복 제도를 『法令全書』에서 발췌하여 번역 및 정리한 것이다.

개정된 문관대례복은 코트, 조끼, 바지, 모자, 겹으로 그 구성을 규정함으로써 1872년(明治5) 제도에는 생략되어 있던 겹을 추가하였다. 또한 그 내용면에서도 더욱 세밀한 설명이 추가되었다. 개정령에 이은 도식은 다음의 〈표 5〉³⁷⁾로 재정리하였다. 〈표 4〉와 〈표 5〉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886년(明治19) 규정은 스탠딩 칼라가 달린 후 V네크라인을 형성하고 허리 아래에서 직선으로 절개되어 뒷자락에 연결되는 형태의 연미복형으로 형태상 1872년 규정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문양을 기준으로 볼 때 1872년 규정에 비해 문양의 수, 조밀한 정도에 있어서 보다 간소화되었다. 앞길에 금장이 있는 칙임관과 금장이 없는 주임관의 차이만 있을 뿐 칙임관 안에서 등급의 차이는 없어졌고 소매의 등급조선도 없어져서 매우 간소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칙임관의 앞길 금장은 桐의 당초무늬가 배치된 사이에 앞 여밈선상에 반 개짜리 오칠동이 6개 배치되어 여밈 후에 앞 중심선을 중심으로 3개의 완성된 오칠동 문양이 생기게 되고, 앞길에는 완전한 오칠동이 6개 배치되게 된다. 주임관 대례복은 앞길 전면과 목뒷점 아래 부분에 금수가 생략됨으로써 대례복 제식이 전반적으로 1872년(明治5) 규정에 비해 간소화되었다.

<표 4> 1886년(明治19) 개정 문관대례복 제식

복식구성/관등		직입관	주입관
概則	繡色	금	좌동
	식장	五七桐章으로 해서 주위에 桐의 당초를 두름.	五三桐章을 사용 그 외는 좌동
	緣飾章	電紋 폭5분 단 電紋에 附屬의 章을 함께 표에서 緣章이라고 칭한다.	무지 단선 폭3분 5리 일반에서는 和蘭繡라고 칭한다. 표에서는 이를 緣線으로 칭한다.
	紐釦 (단추)	금제로 해서 가운데 凸의 圓形으로 그 직경은 7분, 전체면에 五七의 桐章을 조각한다. 하의의 것은 그 직경이 5분5리.	五三의 桐章을 사용하는 외는 좌동
코트	지질	겉 흑라사 안 백견	좌동
	製式	연미복의 製로써 背面의 자락단이 대략 무릎 주변에 이르게 하여 그 길이로 한다. 허리부분의 좌우에 帶을 붙인다.	좌동
	襟部 飾章	스탠딩 칼라로 해서 飾章에 전체는 꼭대기의 정중앙에서 緣 모두 그 폭이 1촌 9분. 앞면 흉부에 이르기까지沿하고 점차로 좁아지는 桐章 3개 및 桐의 당초를 자수하고 緣章을 붙인다. 桐章크기는 중앙의 것은 가로 9분 세로 8분 좌우의 것은 가로 9분 세로 7분	식장은 꼭대기의 정중앙에서 緣 모두 그 폭 1촌 3분 桐章 1개를 붙이고 緣 조선을 수놓는다. 桐章의 크기는 가로 1촌 세로 8분으로 하는 외는 좌동.
	袖部 飾章	식장의 전체는 緣 모두 그 폭 3촌 5분. 소매 내외의 양면에 桐章 각 1개를 붙이고 桐의 唐草를 두른 緣章을 붙인다. 桐章의 크기는 가로 3촌 8분 세로 2촌 6분. 단 수구의 한 변에는 緣章을 붙이고 소매아래 봉재선에는 緣章 1조를 부가한다.	飾章의 바느질 모두 3촌 1분으로 하고 소매 아래, 등에 條線을 붙인다. 그 형식과 桐章의 크기는 좌동
前面 飾章	前面 飾章	흉부의 반쪽 면에 세로로 全形의 桐章 3개를 붙이고 그 邊端에는 半形의 桐章 3개를 붙인다. 주위에 桐의 唐草가 있다. 이 반면 양개를 합해서 흉부의 全章으로 한다. 緣邊에 등글게 견어서 아래 단 자락에 이르기까지 緣章을 자수한다. 桐章크기는 위는 가로 3촌 세로 2촌 8분 가운데는 가로 2촌 8분 세로 2촌 6분 세로 3촌 4분 반형 동장의 치수도 역시 이에 준한다.	흉부의 식장 없이 칼라부터 바로 봉재선을 붙이고 등글게 견어서 아래 단 자락에 이른다.
	원쪽 겨드랑이	원쪽 겨드랑이 부분에 단행 9개의 단추가 있다. 단 위에서 5, 6 단추의 사이에 이르는 흉부를 합하는 것으로 한다.	좌동
後面 飾章	뒷면 桐章	뒷면 꼭대기 아래에 桐章 1개를 붙이고 桐의 唐草를 두른 桐章 크기 가로 2촌 7분 세로 2촌 5분	가장 꼭대기 아래의 식장이 없다.
	뒷면 허리부분	뒷면 허리부분의 한가운데에 桐章 1개를 붙이고 桐의 唐草를 두른다. 그 양변에는 각 1개의 단추가 있다. 동장의 크기는 가로 2촌 8불 세로 2촌 7분	뒷면 허리 부분의 飾章은 모두 좌동. 단 양변의 단추는 桐章보다 조금 아래에 단다.
	좌우측 주머니	좌우측 주머니에 덮개가 있고 위에서 가로 폭 5촌 4분으로 한다. 그 단에 삼릉각을 만들고 세로 폭 前稜에서 3촌 2분 中稜에서 3촌 後稜에서 3촌 6분 桐章 1개를 붙인다. 桐의 唐草를 수놓고 그 세변에 緣章을 붙인 桐章 크기 가로 2촌 5분 세로 2촌 3분으로 한다.	좌우측 주머니의 덮개, 위에서 가로 폭 4촌 6분 아래에 가로 폭 5촌 그 단에 삼릉각을 만들고 세로 폭 前稜에 3촌 1분 中稜에 2촌 9분 後稜에 3촌 4분 桐章 1개를 붙인 桐의 唐草를 수놓고 그 세변에 緣線을 붙인 桐章 크기는 좌동
	허리부분 飾章	허리부분 飾章의 아래부터 아래 자락 단에 이르기까지 양단 모두 緣章을 수놓는다. 좌우 모두 褥端에 각 1개의 단추를 담.	아래 자락 단에 이르기까지 緣線을 수놓는다. 그 외 모두 좌동.

복식구성/관등		적입관	주입관
(조끼)	지질 및 색	지질은 라사로 해서 흰색과 검은색의 두 가지 양식이 있다. 단 백색은 특별한 데이 있을 때 착용한다.	지질은 라사로 해서 鼠色과 검은색의 두 가지 양식이 있다. 단 화색은 좌동.
	제식	전개식 상의에 준한다. 가슴부분에 단행 5개의 단추를 단다.	좌동
榜	지질, 색	모두 하의에 준한다.	모두 하의에 준한다.
	飾章	좌우 모두 바깥쪽면에 電紋의 자수각 1조를 붙이고 그 폭은 1촌 8분	좌우 모두 바깥쪽면에 단선 각 1조를 붙이고 그 폭은 주입 1등부터 4등까지는 1촌 6분 5등 및 6등은 1촌 2분으로 한다.
帽	지질	黒毛羅紗	좌동
	제식	산형으로 해서 그 높이는 4촌 길이 1척 4촌 5분에 飾毛가 있다.	좌동
	식모	흰색 타조털	검은색 좌동
	식장	飾章 전체의 연 모두 그 폭은 2촌 1분 길이 4촌 4분 그 끝을 원형으로 하고 중앙에 1개의 桐章이 있다. 상하에 桐의 唐草를 자수하고 그 주변에 緑章을 불인 桐章의 下에 다시 1개의 단추가 있다. 이 飾章을 기울여 두 폭의 우측면에 불인다. 桐章의 크기는 가로 1촌 세로 1촌.	飾章 전체 연 모두 그 폭은 1촌 5분 길이 4촌. 주변에는 緑線을 붙이고 桐章은 크기 가로 9분 세로 1촌. 그 방식은 모두 좌동.
		飾章과 帽 전체 사이에 원형의 나무결형(木理形) 검은색 紗을 씁힌다. 그 직경 3촌 5분.	원형의 검은색 견을 직경 3촌으로 해서 그 방식은 좌동.
		다시 우측면의 앞 뒤에 비스듬하게 나무결형 검은색 紗을 더한다. 그 폭은 1촌 8분.	우측면 앞뒤의 검은색 견. 그 폭을 1촌 7분으로 한다. 그 방식은 좌동.
		飾章의 지질은 특히 흑라사 이용	좌동
劍	제식	총길이는 약 2척 6촌 3분. 자루의 한 측면은 머리부터 線에 이르는 環을 붙이고 한 측면은 線부터 해서 鳳首를 만든다. 칼날은 외면에 굴곡하고 칼집 입구를 넘는 飾章은 모두 금으로 만든다.	좌동
	柄(자루)	頭緣 모두 길이 4촌 7분. 자루는 바닥에 끈달린 매듭(繩目)의 금선을 감고 다시 두꺼운 매듭의 금선을 바느질한다. 그 수는 12. 자루 중앙에서 폭 8분 5리 두께 6분의 그 앞 뒤가 점차로 가는 양측면에 桐花의 唐草를 새긴다. 연 모두 폭 3분	자루의 바닥에 가는 매듭의 銀線을 이용하고 그 외는 모두 좌동.
	頭(머리)	머리 위의 金具 모두 길이 1촌 4분. 머리의 폭 8분 두께 6분. 桐章 1개를 붙이고 주위에 桐의 唐草를 두른다.	좌동
	緣	길이 5분 5리 측면에 봉황의 머리가 있다. 線 중심부터 길이 1촌 5분 5리	좌동
	環(고리)	고리의 중앙과 자루의 중앙은 그 거리를 1촌 1분으로 한다. 고리에 桐花의 唐草를 새긴다.	좌동
	鍔(칼날)	칼날 면의 직경 세로 1촌 4분 가로 2촌 6분 5리 외면에 桐章 1개와 桐의 唐草를 투조로 한다. 칼날 단 칼집체를 거리 8분 5리로 한다.	좌동
	鞘(칼집)	검은 가죽제로 해서 칼집의 입구의 金具는 폭 7분 두께 4분 5리 길이 3촌 5분 5리 桐의 唐草를 조각하고 칼집의 외면 칼집 입구를 거리 1촌 6분으로 해서 帶留를 붙인다. 鐔의 金具는 길이 5촌 위에 폭 4분 두께 3분 5리 아래에 폭 2분 5리 두께 2분 桐花의 당초를 조각하고 그 단을 球形으로 한다.	좌동
	劍緒	평직의 金組로 해서 길이 2척 8촌 폭 4분으로 한다. 그 양끝을 묶고 모두를 붙인다. 모든 簪은 길이 2촌 3분. 모두의 중앙에서 圓徑 1촌 1분	모든 簪은 은사를 이용하고 그 외는 모두 좌동
	劍帶	흑라사로 만들고 白絹平織의 組를 붙인다.	좌동

<표 5> 1886년(明治19) 개정 문관대례복 도식

	모자	상의	조끼	바지	검
칙임관					
주임관					

IV. 1886년(明治19) 문관대례복 유물

문관대례복 제식이 실제로 제작될 경우 어떠한 형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관대례복 규정에 의해 제작된 칙임관 유물 한 점과 주임관 유물 한 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한 유물은 1930년대에 착용한 일본 奈良女子大學 소장의 칙임관 유물과 독립기념관 소장의 주임관 유물이다. 칙임관 대례복 유물로는 상의, 바지, 조끼, 검, 검대를, 주임관 유물로는 상의, 바지, 조끼, 모자, 모자함을 조사하였다. 유물은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1. 일본 奈良女子大學 소장 문관 칙임관 유물

일본 奈良女子大學에 소장되어 있는 문관칙임관 대례복은 기증자인 궁성타마요(宮城タマヨ)의 남편인 宮城長五郎이 착용한 것이다. 이 대례복은 1934년(昭和9) 宮城長五郎이 長崎控訴院의 檢事長이 되었을 때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검사장은 칙임관1등, 2등에 해당한다. 그는 1939년(昭和14)에 단기간이자만 사법대신이 되었다.³⁸⁾ 대례복 일습 중에서 상의, 조끼, 바지, 검과 검대를 조사할 수 있었고 촬영한 사진을 <표 6>³⁹⁾에 나타내었다. 유물의 자세한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일본 나라여자대학 소장 宮城長五郎 대례복

	상의	조끼	바지	검과 검대	문양					
사진										
	앞	뒤	앞	뒤	전체	측장	전체	손잡이 세부	소매 포켓	단추

1) 상의

걸감은 흑라사이고 안감은 백견으로 제작되었다. 형태는 앞허리선에서 수직으로 절개되는 연미복형이다. 뒷고대 안쪽에 <그림 7>과 같이 'MITSUKOSHI 6 OF FUKUTEN'이라는 상표가 붙어 있어서 미츠코시 [三越] 양복점에서 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宮城長五郎 대례복
상표

전체적으로 五七桐 문양이 자수되어 있다. 9개의 단추가 왼쪽 길에 달려 있지만 장식적인 역할만 하 고 앞중심선을 따라서 안쪽에 달려 있는 훅으로 여 미게 되어 있다. 단추는 금도금하여 오칠동 문양을 붙이고 있다. 문양의 수와 배치는 모두 개정된 문관 대례복제의 규칙을 따른다. 법령과는 달리 유물을 통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양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양감이 있는 오칠동문과 당초문을 표현하기 위해 도안에 맞추어 미리 충진재로 형태를 잡은 다음 그 위를 코일형으로 제작한 금사로 메우고 다시 그 위에 광택이 있는 금사와 스팽글로 줄기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자수 기법을 일본에서는 금물자수(金モール刺繡)라고 부른다.

2) 바지

걸감은 흑라사이고, 전체적인 안감은 대어져 있지 않지만 허리부분에 안단이 대어져 있다. 축장은 세로 의 電紋 두 줄이 마주 보도록 제작하여 바지 옆선에 부착하였다. 바지의 여밈은 앞 중심선에 단추를 이용하고 신체 사이즈에 따라 뒤 중심에 달려 있는 끈을 이용하여 허리 여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써스펜더를 걸 수 있는 단추가 허리선에 달려 있다.

3) 검과 검대

<표 6>의 부분 그림에서와 같이 손잡이에는 봉황 머리 모양이 장식되어 있고 오칠동을 조각하고 있다.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劍緒는 손잡이에 뚫여 있다.

2. 독립기념관 소장 문관주임관 유물

독립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村井倉松의 문관주 임관 대례복은 대례복 일습 중에서 상의, 조끼, 바지, 모자와 모자함을 조사하였고 촬영된 사진을 <표 7>⁴⁰⁾ 로 정리하였다.

유물의 자세한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모자

검은색 벨벳으로 제작하였고 안감은 백견으로 제작되어 검은색 깃털로 장식하고 있으며 철제로 제작한 모자함에 보관하고 있다. 모자의 우측장에도 칙임 관의 오삼동이 부착되어 있다.

<표 7> 독립기념관 소장 村井倉松 대례복

사진	모자와 모자함		상의		조끼		바지		문양	
	전체	우 측장	앞	뒤	앞	뒤	전체	축장	소매 포켓	단추

2) 상의

걸감의 지질은 흑라사, 안감은 백견이고, 형태는 앞허리선에서 수평으로 절개되어 뒷자락이 갈라져 있는 연미복형이다.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왼쪽 안주머니에 'S.Yamasaki 4, CHOME CINEA, TOKIO'라는 상표가 있어서 일본 동경에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五三桐의 문양이 금몰 기법으로 자수되어 있고 가장자리를 장식한 금선 모양에서 칙임관에는 있는 電文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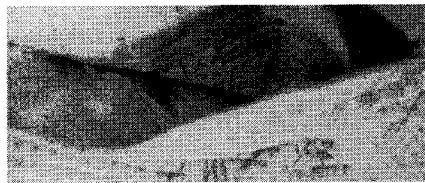
3) 바지

걸감은 흑라사이고, 허리부분에 안단이 대어져 있다. 측장에 電紋은 없고 폭이 5 cm이다.

3. 오동문양의 상징성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문관대례복은 산형의 모자, 연미복형 상의, 조끼, 바지를 착용하고 패검합으로써 일습을 완성한다. 이러한 복식 구조는 서양의 궁정복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근대 국가 시기 예복의 일반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당대에 보편성을 지닌 대례복 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양이다. 예컨대, 유럽에서는 월계수나 참나무(oak tree) 등 전통적으로 용기와 확고부동성의 의미를 가진 문양을 썼다.⁴¹⁾ 일본은 칙임관은 五七桐, 주임관은 五三桐으로, 오동 문양을 차등 적용하였다. 이와쿠라 사절단이 미국과 유럽에서 국가상징 문양이 자수된 대례복이 근대 외교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착용을 주장하였다면, 明治 정부는 대례복의 국가 상징문양으로 오동 문양을 채택함으로써 일본 전통의 문양을 전면적으로 부각하여 대례복과 결합시킨 것이다. 明治정부는 문관대례복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서양과 동등한 근대 주권 국가로 부각할 수 있는 문양으로 어떤 문양을 채택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일본에서 동문양이 사용된 대표적인 예는 黃櫨染袍의 桐竹鳳凰紋이다. 桐竹鳳凰紋은 오동나무, 대나무, 봉황, 기린이 조합된 문양으로 중국의 고사에 '봉황이라는 새는 오동이 아니면 머물지 않고, 대나무



<그림 8> 村井倉松대례복의 상표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고 體泉이 아니면 마시지 않고...에서 비롯되어 천황의 黃櫨染袍에 문양으로 활용되었다.⁴²⁾ 황실의 문장으로 활용되던 오동문양은 豊臣秀吉에게 姓과 함께 賜紋으로 수여된 이후 武家들의 문장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창작 초기에 오동문양은 오동잎과 꽃술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지만, 시대를 내려옴에 따라 도식화되었다.

오동문양은 오랫동안 천황을 상징해 온 것으로부터 천황이 일본을 상징한다는 개념이 강하게 도입된 明治期에 '천황=일본'이라는 의미로 대례복의 문양으로 채택된 것이다. 일본 문관대례복의 오동문양은 서양을 기준으로 외관을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국가의 정체성이 반영된 예라는 측면에서 비유럽 국가의 대례복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논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일본 明治期에 제정된 문관대례복의 제정과정과 제정된 법령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 실제로 제작되어 착용된 칙임관과 주임관 대례복 유물 한 점씩을 조사함으로써 일본 근대 복식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72년(明治5)에 제정된 문관대례복의 제안자는 미국과 유럽에 파견된 이와쿠라(岩倉) 사절단이다. 그들은 최초 도착지인 미국에서 일본의 전통 예복 차림으로 국서를 봉정할 때의 경험을 통해 서양식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영국으로 가는 길에 양복식 예복을 문관대례복으로 채택하는 것을 정부에 제안하였고 정부에서 제정한 문관대례복 도안으로 영국에서 최초의 착용자

가 되었다. 이와 같이 1872년(明治5) 일본 문관대례복의 제정 및 최초의 착용은 외교상의 이유에서 시작되었다. 불평등 조약에 대한 개정이 국가의 당면과 제인 상황에서 외관의 차이로 인해 외교상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1872년(明治5) 문관대례복 법령과 유럽에서 이와쿠라 사절단이 제작하여 착용한 문관대례복 간에 형태적 차이가 생겼다. 이는 양복이라는 이질적인 문화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시행착오라고 할 수 있다. 연미복 형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앞 허리선에서 직선으로 절개하여 뒷자락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등글게 곡선으로 절개하는 디자인을 제시하였고, 일본 전통 자수의 섬세한 도안처럼 상의 자수의 도안을 조밀하게 제안하고 있다. 또한 소매 역시 等級標條을 최대한 세분하여 직급별 차이를 두고자 하였다. 그러나 코일형의 실로 양감을 느낄 수 있는 금물 자수를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도안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국내에서 제작된 대례복과 유럽에서 제작하여 착용한 사절단의 대례복에 형태의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행착오 후에 1886년(明治19) 개정된 문관대례복은 자수되는 문양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칙임관과 주임관의 차이만 두었을 뿐으로 칙임관들 사이 혹은 주임관들 사이에서의 구별은 생략하였다.

셋째, 유물조사를 통해 제작자에 대한 정보와 법령의 도안이 자수되었을 때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있었다. 奈良女子大學 소장의 칙임관 유물에서는 뒷고대 안쪽에 미츠코시 [三越] 양복점이, 독립기념관 소장의 주임관 유물에서는 왼쪽 안주머니에 암사카 (S. YAMASAKI) 양복점이 영문으로 자수되어 있어서 일본에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수기법을 살펴보면 도안에 맞추어 미리 충진재로 형태를 잡은 다음 그 위를 코일형으로 제작한 금사로 매우고 다시 광택이 있는 금사와 스팽글로 줄기를 생생하게 표현하는 금물 기법이 활용되었다.

넷째, 문관대례복에 자수된 오동 문양은 전통적으로 천황을 상징하던 문양으로부터 일본이라는 국가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활용되었다. 칙임관은 가운데 꽃술의 수가 7인 오칠동을, 주임관은 가운데

수가 5인 오삼동을 자수하도록 하고 등급별 차이에 따라 문양의 多少에 차이를 두었다.

전통적인 자국의 복식문화를 개혁하여 새롭게 도래한 서양의 복식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는 당시의 국제 관계 속에서의 국가 상황과 정치를 주도한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明治 초기 유신정부를 이끌었던 일본의 정치인들은 서양화된 외관을 갖추는 것이 외교적으로 동등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관대례복의 제정은 가장 가시적인 정책이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일본의 문관대례복 제정 과정은 1876년 일본에 의해 개항한 조선의 복식제도 개혁과정과 1900년 대한제국의 문관복 장제식에서 제시한 형태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선행연구로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본 연구에서 '서구식 대례복'은 유럽 중심의 양복식 예복을 가리킨다. 일본에서는 '대례복'이 서구식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894년 갑오의제개혁 시기부터 흑단령을 대례복으로 착용하도록 하였다가 1900년 4월 17일 이후에는 양복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양복형을 '서구식 대례복'으로 명명한다.
- 2) 일본학계의 복식사 분야에서는 문관대례복에 대한 연구가 일찍부터 이루어졌는데 일본의 문관대례복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河鱸實英(1959)는 "明治以降の禮服"에서 양장을 중심으로 하여 남녀의 대례복 제도를 제정된 법령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太田臨一郎(1974)은 "明治初期の軍人、官員の制服"에서 문관대례복 제정에 있어서 이와쿠라(岩倉) 사절단의 역할을 간략하게 설명하였고, 20년이 지나 植木淑子(1994)는 "明治初期における文官大禮服"에서 明治정부가 구미에 과연한 이와쿠라 사절단이 영국에서 빅토리아 여왕을 알현할 때 착용한 대례복과 1872년(明治5) 제정의 대례복 간에 차이가 생긴 이유를 사절단과 明治정부 간에 주고받은 편지를 소개하면서 설명하였다. 刑部芳則(2002)은 "岩倉遣歐使節の文官大禮服について"에서 植木淑子와는 다른 관점으로 문관대례복의 필요성을 제안한 사람을 밝히고 서로 다른 형태의 문관대례복을 제정하게 된 경위를 재검토하였다. 이를 논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河鱸實英 (1959), 明治以降の禮服, 被服文化, 57; 太田臨一郎 (1974), 明治初期の軍人、官員の制服, 被服文化, 164; 植木淑子 (1994), 明治初期における文官大禮服, 日本文服學會誌, 13; 刑部芳則 (2002), 岩倉遣歐使節の文官大禮服について, 風俗史學, 19.
- 3) 田中彰 (1977). 岩倉使節団. 동경: (弓)講談社, p. 18.
- 4) 泉三郎 (2001). 堂々たる日本人. 東京: 祥伝社, p. 15. 明治6년 이후 일본에서는 양력을 사용하게 되므로 출

- 발할 때와 도착할 때의 날짜 표기가 다르다.
- 5) 久米邦武 編, 田中 彰校注 (1977). 特命全權大使 米歐 回覽實記, 전5권. 東京: 岩波書店.
 - 6) 개항이후 일본의 복식간소화에 대해서는 이경미 (1999). 19세기 개항이후 한일 복식제도 비교.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pp. 18-38 참고.
 - 7) 泉三郎. 앞의 책, p. 17.
 - 8) 田中彰 (2003). 明治維新と西洋文明-岩倉使節団は何を見たか. 東京: 岩波新書, p. 2.
 - 9) 梅谷知世 (2001). 幕末における洋行者の服飾. 服飾美學 32; 梅谷知世 (2002). 明治前期における洋行者の服飾. 服飾美學, 34.
 - 10) 泉三郎. 앞의 책, p. 36.
 - 11) 外務省外交史料館藏. 右大臣岩倉具視特命全權大使トシテ締盟各國へ派遣ノ件 二(六四四三二)에 이 때 지참한 예장 관련의 목록이 나온다. 刑部芳則 (2002). 앞의 논문, pp. 53-55에서 재인용.
 - 12) 이와쿠라 사절단의 서구식 대례복 제안에 관하여는 植木淑子(1994)에서 자세히 연구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였다.
 - 13) 본 연구에서 「大使公信」과 「本朝公信」의 원문은 일본 국립공문서관 아시아 역사 자료 센터의 자료를 발췌하여 번역하였다.
 - 14) 使節一行は、華盛頓にて大統領に國書捧呈の時は衣冠の 礼服なりしが、此時新礼服の制出來たる故、予は先發して、英國に至り、使節一行の爲に新礼服を註文し、英國にて國書奉呈の時は新礼服なり。林董 저. 由井正臣 校注 (1979). 後は昔の記. 東京: 平凡社, p. 171.
 - 15) 新制大禮服を調製するために、予は使節一行より先に倫敦に渡ったことは、既に語りたる如し。其時劍の鍔の 尖に鳳凰の頭を付することを註文するに大に困ったが、 終にアヤフヤの形を因して之を模形として作らしたのが、今用いられる者である。鳳凰とも鶴とも付かず、 一種妙な鳥の頭である。 위의 책, p. 181.
 - 16) 是の日、大使・副使等始めて新制の大禮服を著用す。 日本宮内廳編 (1968). 明治天皇紀, 2. 東京: 吉川弘文館, p. 779.
 - 17) 泉三郎. 앞의 책, p. 93.
 - 18) 위의 책, p. 36.
 - 19) 위의 책, p. 117.
 - 20) 每日新聞 (1990). キヨッソーネと近世日本書里歸り展. 東京: ブンユ一社, p. 21.
 - 21) 今行わるる文官大礼服は、初め制定の時發布される圖式とは大に異なり、多くは予が英國にて裁縫匠と相談して定める處に基けり。林董 저. 由井正臣 校注. 앞의 책, p. 171.
 - 22) 明治2年 7月 勅奏判授の等級を改正し、四位以上を勅授、六位以上を奏授、七位以下を判授と爲す。尋いで勅奏判授の稱を改めて勅任・奏任・判任と爲す。日本宮内廳編. 앞의 책, p. 153.
 - 23) 今般勅奏判官及非役有位大禮服並上下一般通常ノ禮服別冊服章圖式ノ通被相定從前ノ衣冠ヲ以テ祭服ト爲シ直垂狩衣上下等ハ總テ廢止被 仰出候事 但新製ノ禮服所持無之内ハ禮服着用ノ節當分時迄ノ節直垂上下相用

- 不苦候事、内閣官報局 (1872). 法令全書. 太政官, 339.
- 24) 内閣官報局. 法令全書. 明治5年, pp. 238-239. 표 다음에 나오는 도식에는 비역유위(非役有位) 4위 이상과 5위 이하의 규정. 상하 일반예복으로 연미복 규정도 나오지만 본 연구에서는 문관대례복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 25) 内閣官報局. 앞의 책, pp. 240-262.
 - 26) 1872년의 문관대례복 규정 이후의 다른 대례복에서는 모두 右側章으로 규정되어 있다.
 - 27) 内閣官報局. 앞의 책, p. 251(직임관), p. 258(주임관), pp. 263-264(관임관), p. 265(등외).
 - 28) 従來大禮服服色の制、上衣は勅奏任官總て黒羅紗、下衣並びに袴は勅任官白羅紗、奏任官鼠羅紗なり、然れども泰西諸邦に於ては特別の大儀を除く外、上下衣・袴共に黒色を用ゐる例なり、仍りて是の日大禮服の制を改め、上下衣袴總て黒羅紗地を用ゐることと爲し、白色鼠色の下衣袴を著用すへき節は豫め之れを告示こと定む、非役有位者の大禮服之れに準ず、又官吏通常禮服著用の場合は黒色・紺色のフロックコートを代用することを許し、判任官以下にありては羽織・袴を換用することを得しめ、以て簡樸の美風を示す、尋いで即位大嘗祭立后・立太子・御元服及び外國皇帝・大統領來朝等の際に於ける勅奏任官著用の大禮服は、其の下衣・袴共に白色鼠色を用ゐ、其の他には總て黒色を用ゐることと爲す、皇族の禮服は總て先規に由りて之れを改めず、日本宮内廳編 (1968). 明治天皇紀, 4, pp. 262-263.
 - 29) 丹波恒夫 (1966). 鏡鑄にみる明治天皇と明治時代. 東京: 朝日新聞社, p. 118.
 - 30) 大禮服 着用日(明治6년 태정관 제91호로써 신무천황 즉위일을 紀元節로 개정함) 新年朝拜 元始祭 新年宴會 伊勢兩宮例祭 神武天皇即位日 神武天皇例祭 孝明天皇例祭 天長節 外國公使參朝ノ節、通常禮服 着用日 參賀 禮服御用召並任敘御禮 右之通被相定候事、内閣官報局 (1872). 法令全書. 太政官 第373號(明治5年 11월 29일)
 - 31) 1881년 조사사찰단으로 일본을 방문한 조사 姜文馨은 「聞見事件」에서 '朝賀有三大節曰新年節曰天長節曰紀元節紀元即神武即位之日'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 천 정절은 왕의 생일이다. 허동현 편(1999). 朝士視察關係資料集, 12. 서울: 국학자료원, pp. 12-13
 - 32) 先般禮服制式被 仰出候ニ付左ノ通相達候事 一勅奏官ハ今年十月ヲ限り大禮服調製可致事 一判任官ハ大禮服調製致候迄通常禮服ヲ以テ換用不苦候事 一在職並有位ノ輩ハ當十月ヲ限り直垂上下換用不相成事 一通常禮服地合ハ羅紗之外可爲隨意尤色制ハ規則ノ通可相心得事、内閣官報局 (1872). 法令全書. 太政官 第48號(明治6年 2월 13일)(布)
 - 33) 1871년(明治4) 8월9일 太政官日誌, '散髮・制服・略制服・禮式之外、脱刀トモ、自今可爲勝手旨、御布令アリ' 신문집성 명치편년사 편찬회(1934-1936). 新聞集成 明治編年史 1권, p.393. 일본 단발령에 관한 것은 이 경미 (1999). 앞의 논문, pp. 38-46 참고.
 - 34) 奉勅宮内大臣 伯爵 伊藤博文. 内閣官報局 (1872). 法令全書. 明治19年 12月 4日 宮内省達第15號.
 - 35) 宮内省達第十六號 文官大禮服改定ノ處從前ノ服ハ當分

- 標準ヲ除キ著用スルモ苦シカラス 明治19年 12月 4日
宮内大臣伯爵伊藤博文、内閣官報局 (1872). 法令全書
宮内省達第十六號
- 36) 内閣官報局. 法令全書. 明治19年, pp. 247-249.
 - 37) 위의 책, pp. 250-257.
 - 38) 岩崎雅美 외 (2004). 奈良女高師の教員の服装 - 大礼服と教授服 -. 奈良女子大学大学院 人間文化研究科 学術研究交流センター 活動 年報 Vol.5.
 - 39) 본 유물에 대한 조사 및 촬영은 2007년 11월 30일 일본 奈良女子大學 岩崎雅美 교수의 연구실에서 실시되었다.
 - 40) 본 유물에 대한 조사 및 촬영은 2008년 4월 21일 독립기념관 유물조사실에서 실시되었다.
 - 41) Valerie Steele (2005). *Encyclopedia of Clothing and Fashion, I.* pp. 312~314.
 - 42) 佐野惠作 (1933). 皇室の御紋章. 東京: 三省堂, p. 99.